

지역방송의 지역성 및 다문화주의 반영에 관한 연구

홍 숙 영[†]

A Study on the Reflect of the Locality and the Multiculturalism in the Local Broadcasting

Sook-Yeong Hong[†]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present status of multicultural broadcasting programs as multicultural phenomenon is spreading throughout Korean society and it discusses how a local broadcasting has to reflect locality and multicultural characteristic. A notion on the local of multimedia and multichannel time is expanding as a concept of emotional and psychological territory over geographical space. Therefore the locality should reflect attachment and interests of its members as well as disseminating multicultural reality. A locality for broadcasting should accept differences, reflect a cultural diversity, and satisfy its dynam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whether a local broadcasting is performing its function as a local press and a place for public opinions by examining how they reflect reality of local, where an inflow of immigrants and their cultures are altering the place as a multicultural society, and what programs they propose. This study also presents media education for immigrants, revitalization of community, multicultural education about local citizens, and practical use of multicultural contents and small output radio as a source of supply for local broadcasting program in order to harmonize production of multicultural media contents in local society.

Key Words : Locality, local broadcasting, multiculturalism, immigrant, small output radio

주제어 : 지역성, 지역방송, 다문화주의, 이주민, 소출력 라디오

1. 들어가기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관한 논의는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으며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정치학, 사회학, 여성

학, 언론학, 방송학 분야 등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학계가 연계하여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시도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또한 이주민들을 포용하고, 언어교육이나 사회 적응 교육 등을 실시하며, 다문화 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정책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일상을 들어

[†]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논문접수 : 2008년 8월 21일, 심사완료 : 2008년 9월 11일

* 본 논문은 2008년 3월 21일 '다문화미디어콘텐츠의 현황과 전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다 볼 때, 현실은 이상이나 이데올로기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인들이 외국들을 바라볼 때, 여전히 고정관념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외면당하고 한국 사회에 동화되기를 강요받거나, 고립된 채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음성적인 커뮤니티도 적지 않아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키거나 한국사회나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시킬 우려도 있다.

볼통(Dominique Wolton)은 “커뮤니케이션하기란 곧 공존하기”라고 하였다. 21세기와 더불어 특히 타인에 대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의 사적인 삶의 영역이나 공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사회와 국가 속에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나 자신과 타인을 평등하게 생각하면서 공존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볼통은 이런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민주적 개념이라고 주장한다[16].

오늘날 우리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의 상당 부분은 미디어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미디어는 다문화 현상을 반영하고, 호스트 국가의 국민과 이주민이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지나치게 경제적 개념으로만 흐르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방송은 변화하는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문화와 일상을 그려내거나 이주민의 한국 생활을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토크쇼, 토티콘 등에서 반영함으로써 다문화 시대를 맞는 한국 사회의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혼종적 토크쇼 방식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형식을 취하면서 멜로 드라마적 주제와 이야기 구조를 통해 이산인의 정체성을 재현[5] 하고 있는 한국 방송의 ‘러브인 아시아’(KBS1)나 16명의 미혼 외국인 여성들의 눈을 통하여 본 한국사회의 모습을 그린 ‘미녀들의 수다’(KBS2)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조선족 여성의 사랑과 성공을 그린 ‘열아홉 순정’(KBS1)이나 라이파이한을 주인공으로 한 ‘황금신부’(SBS) 등에 등장하는 드라마 속 이주 여성들은 주변 인물에서 주인공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외국인들이나 혼혈인들의 방송 출연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반영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확산시켜 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보다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에 편입되어 순종적인 아내와 며느리의 이미지를 굳히며, 한국 여성과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외국인의 시각보다는 한국인을 위주로 하여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을 돕거나 지원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지역 사회의 경우, 외국인에 관한 장기적 정책의 부재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하기보다는 단발적이고 일회성이며, 단기적인 이벤트식 행사가 주를 이루는 실정이다. 지역 방송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아내며 변화하는 지역 사회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쫓는데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민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 어떻게 수용되고 해석되고 있는지 알아 본 다음, 지역성과 다문화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짚어 보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로 변화하는 사회의 현상을 지역 방송이 어떻게 그려내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하는지 알아봄으로써 지역의 언론이자 공론 형성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고찰해 볼 것이다. 끝으로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 미디어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2. 한국사회와 다문화

2.1 다문화사회의 유형

문화에 있어서 상대주의(relativism)란 “모든 문화가 똑같이 존경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문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판단을 일시 중단하고, 감정이입을 하며, 각각의 특정한 문화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말한다. 따라서 상대주의에 따르면 문화의 충위를 매기기보다는 각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지니게 된다. 반면 문화적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모든 문화에 적용되는 고정되고 보편적인 윤리적 교훈이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모든 문화의 안팎에서 적용되는 일단의 가치, 표준, 도덕 등이 존재”한다고 본다[15]. 물론 현실적으로 문화를 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양분하여 지닐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문화적 상대주의는 다문화 현상을 수용함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과 타협의 자세를 취하게 되지만, 문화적 보편주의는 주로 지배적인 위치의 문화가 타 문화에 대해 보편적 기준을 내세우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월적 위치의 보편성이 강조되는 폐단을 낳기도 한다.

이에 대해 볼통은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 해외 프랑스령 출신의 프랑스인들이 모여 다문화 사회가 된 것이 바로 프랑스의 권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보편주의를 내세우며 보편적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프랑스인들이 힘든 육체노동을 기피하면서 해외 식민 국가들로부터 이주민들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주로 외곽지대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계토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주민이나 수도권에 사는 프랑스령으로부터 온 프랑스인들은 “내적 추방(exil intérieur)”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17]. 즉 프랑스의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마치 추방당한 것처럼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수도권의 변두리에 그들만의 거주지역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남국은 다문화사회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처럼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노동자와 낮은 문화,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경우와 캐나다나 미국처럼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의 나라였던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첫 번째 유형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보면 프랑스는 자국의 정체성을 지니면서 육체노동 인력의 필요성, 출산기피 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 억제에 대한 대책으로 이주민의 출산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정책 등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증가하였으나 문화정책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내세우면서 이주민들의 소외 현상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2]. 이와 같은 프랑스의 상황은 우리나라가 3D업종의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결혼 이민자를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다. 물론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 국가들이 여전히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프랑국어권(francophonie) 국민들의 언어적 동질성으로 인한 동일한 어권 형성이라는 부분이 우리와 다르기는 하다. 프랑스가 취하고 있는 보편주의는 안팎에서 크게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주민들이 겪게 되는 내적 추방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겪고 있는 소외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2.2 다문화의 개념

이용승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포스트모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학문적·정책적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면서 이는 국가나 인

종, 민족 등의 거시적인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내의 소외계층이나 소수인종, 또는 세대 간 갈등과 성역할의 차이 등과 같은 미시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를 하나로 정의내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문화주의가 문화의 다양성과 그 다양성에 근거하는 삶의 방식, 실천, 관점을 말하는 정체성(identity)의 인정(recognition)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큰 틀의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6].

조정남은 하나의 가미술에 잡다한 내용물을 섞어 넣어 결국은 그 잡다성을 잃고 하나의 단일물로 융해되어 나오는 단일의 국민 즉 ‘melting pot 형 국민’이 아니라, 잡다한 구성요소들이 다정하게 공존하며 제 각각의 색깔과 냄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들이 고유하게 가진 개별 성과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통합성을 이뤄내는 이른바 ‘salad bowl’ 같은 유익한 공존을 내용으로 하는 다원적인 국민상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다문화주의는 개방적이며, 동화주의를 배제하고, 각 공동체의 문화나 언어, 생활 습관 등에 대한 공적 원조를 통해 불만을 예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9].

따라서 다문화주의란 각 커뮤니티가 특수성을 지니되고립되거나 융해되지 않은 채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문화주의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자민족 중심주의, 자국민 중심주의적 사고 때문이다. 사실 자민족 또는 자국민 중심주의는 어느 민족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호스트 국가인 우리가 우리 고유의 문화나 정체성을 쉽게 포기할 수 없듯이, 이주민 역시 자신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 역사, 언어 등을 포기하고 한국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을 때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호스트 국가의 문화와 언어가 우월하고, 이주민의 본국 문화가 열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면,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은 더욱 지연될 것이며,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는 그들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와 관련한 인터넷 상의 인신공격적인 댓글이나, 결혼 이민여성에 대한 구타, 상업적 목적의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의 상품화 등 부정적인 현상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타 문화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경태는 한국 사회에서 화교에 대한 차별을 예로 들면서 화교를 개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묶어서 취급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타자’에 대한 차별이 개인적인 특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특징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차별의 속성을

보여주며, 이는 곧 인종주의적 특성이라고 주장한다[4].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등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타인과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적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3. 지역사회와 지역방송

3.1 지역성의 부각과 지역성의 변화

지역방송 콘텐츠는 지역의 물리적·심리적 공간을 토대로 하여 지역민들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와 삶을 담아내야 한다. 지역의 정통성을 계승하며 동시에 지역의 역동성을 표현하는 지역방송 콘텐츠는 한 국가의 문화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었던 탓에 지역성을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비춰져 왔다. 따라서 지역성에 대한 관심이나 강조가 자칫 편협한 사고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으며, 중앙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역성은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역방송 역시 형식적인 제작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중앙 의존적인 형태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체의 실시와 지역민영 방송의 등장으로 변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지역의 문화와 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조항제에 따르면 지역성을 강조하는 현상은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유럽 등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 라디오의 경우 지역성의 구현은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나 텔레비전의 지역분화 현상은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독립방송 및 지역용 공영방송이라는(특히, 프랑스의 FR3)이라는 새로운 지역방송의 모델이 등장”한 점과 “소규모 텔레비전에 대한 시청자의 큰 호응”덕분에 유럽의 지역방송은 탄력을 받고 발전하게 되었다[10].

지역방송은 지역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발굴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다지 명확한 개념은 아니며, 많은 학자들이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한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 왔다. 그로스버그(2000)는 홀이 말한 정체성의 두 모델 즉 완전하게 구성되고 분리되며 구별되는 정체성과, 상관적이고 불완전하며 진행 중인 정체성을 인용하며, 다양한 정체성을 크게 차이(différance), 파편(fragmentation), 이중교배(hybridity), 경계(border), 이산(diaspora)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14]. 지역의 정체성이란 차이와 다양한 파편들, 혼종, 경계선상에 선 주체와 이산적 특성이 뒤섞여 나타나는, 쉽게 정의내리기 힘든 복잡한 형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적 정체성이 지닌 차이의 힘은 결국 방송의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피스크는 다르게 하는 힘(“power to be different”)이 사회적 차이(social differences)와 사회적 다양성(social diversity)을 유지시키는 힘이라고 하였다. 역으로 프로그램의 획일성(homogeneity of programming)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12].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이 결국 차이를 만들고 이러한 차이가 프로그램의 가치를 높게 되는 것이다.

지방분권 정책으로 지역성이 강조되면서 공론의 장이자 문화의 장으로 기대를 받던 지역방송은 인터넷방송과 위성방송, 모바일 방송, IPTV 등의 도전으로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방송권역의 경계가 해체되는 마당에 로컬리즘이나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정상윤은 우리의 방송법에 로컬리즘을 공간적 개념으로만 규정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간적인 기준보다는 내용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 장소나 방영되는 장소에 상관없이 “특정지역의 고유한 이해(interest)나 관심사(concerns)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8].

강명현과 홍석민은 “전통적으로 공간성을 강조하던 로컬리즘의 패러다임에서 공유된 문화나 사회적 연대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차원의 로컬리즘, 즉 사회적 로컬리즘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공간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이나 지역방송의 시청동기 요인이 지역 프로그램의 시청 정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단순히 특정 지역에 오래 거주하면서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공간적 요소보다는 비록 거주 기간은 적을지라도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연대감이나 향후 거주 의향, 그리고 지역정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형태의 요인들이 지역 프로그램의 이용에 더욱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1].

여러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은 특정 지역의 거주기간보다는 심리적 연대감이나 지역 사정에 대한 관심 등이 지역성의 기준으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방송의 지역성을 논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지리적 근접성보다는 심리적·정서적 연대감과 지역 사회의 정보습득 동기의 적극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과 DMB, 위성방송 등 공간적 경계를 넘나드는 매체가 발달하는 상황에서 공간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을 강조하는 지역성의 개념은 지역방송의 보다 자발적이고 폭넓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3.2 지역방송의 위기론

지역방송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매체가 다양해지고,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진행되면서 지역방송은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경제적 위기, 기술적 위기, 콘텐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역방송의 경제적 위기는 광고시장의 변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용의 논리가 강화되고 가뜰이나 공간적 영역의 해체를 맞으며 곤경에 처한 지역방송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기인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영 미디어어렘(media representative)이 도입되어 KOBACO가 독점해 오던 광고체계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경쟁적 체제로 전환되어 시장의 원리를 따르게 될 경우 지역방송의 생존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지역 방송의 KOBACO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방송이 단기간에 광고 시장을 개척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방송의 기술적 위기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디지털 장비의 도입과 새로운 인력 확충 등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지역 방송사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 장비의 도입과 신기술 보유 인력의 확보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역방송의 콘텐츠의 위기는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발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지역방송의 여건상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로컬리즘의 개념이 공간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감과 소속감으로 변화되고, 기존의 광고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며, 산업 논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방송은 지역의

전통과 특수성 및 변화를 충분히 담아냄으로써 진정한 지역의 방송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이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콘텐츠로는 지역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취향과 여론을 반영하는 수용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

이제 지역 방송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지역의 정책과 문화를 논하는 공론의 장이 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지역방송은 지역의 경제, 교육, 환경, 여성, 복지 등의 주제와 함께 다문화에 관한 주제에 눈을 돌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 콘텐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활동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다문화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렸으며 따라서 이들을 이방인 취급하거나 한국 사회에 동화시켜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3.3 지역방송과 다문화 콘텐츠

문경희는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이주여성의 인권보다는 그들의 자녀와 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주여성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한다 [3]. 한국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외국인 정책은 이주 여성들의 성장 배경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 사회 위주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중앙정부의 이와 같은 시각은 그대로 지역사회로 전달되어 지역 차원의 정책 수행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급한 산업논리는 이주민들의 문화를 이용하여 관광 상품화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기도 전에 경제적 자원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보다는 타 문화를 이질적으로 바라보고, 대가를 지불하는 물적인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한국 역시 호주와 마찬가지로 인구증가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돌입을 경험하게 되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히이지 교수는 호주의 경우 문화의 다양성이 갖는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려는 호주 정부가 결국 문화적 다양성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3]. 한국의 이주민 정책이 걸출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주로 경제적 이유에서 받아들인 이주민들의 문제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거나 경제적으로만 풀려고 하는데 있다. 이주민과 관련한 정책과 여러 문제들은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을 모두 동원하여 다각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방송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해야 하며, 이것이 지역의 문제일 경우 지역방송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주민들은 그들의 문화적 특성상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이주민들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한인 타운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 예이다. 한국 역시 외국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이 외국인들을 더욱 고립시킬 수도 있으나 반면 그들만의 동류의식을 지니며 문화를 향유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지낼 수 있기에 정서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외국인 여성과 농촌 남성의 결혼을 주선하기도 하여 일부 농촌 마을에는 4가구당 1가구가 다문화 가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가 바로 방송매체이다. 김경환에 따르면 일본에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방송으로 'NHK라디오', '인터FM', 'FM와이와이' 등과 같은 라디오 방송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라디오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방송되고 있는데, 특히 다민족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최초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인 'FM와이와이'는 고베 나가타구에서 8개의 언어로 방송을 하고 있다. 고베의 나가타구는 일본의 대표적인 다문화지역으로 28 개국에서 온 만여 명 이상의 이주자들이 살고 있으며 이는 지역 인구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FM와이와이'는 이주민들이 방송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방송사는 이주민들의 문화적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7].

일본의 경우 외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 라디오방송사가 존재하여 외국인들의 언어, 문화, 교육 등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방송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민들을 위한 방송은 한국방송에서 '러브인 아시아'와 '미녀들의 수다'를 고정적으로 편성하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그 외 각 프로그램의 코너나 토론, 또는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미녀들의 수다'같은 경우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흐르면서 내용에 있어서의 선정성이나 자극적인 언사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으나 다양한 사고와 문화, 생활 방식을 공유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다문화 프로그램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성방송의 경우 RTV(스카이라이프 채널 531)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뉴스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23]. '이주노동자 뉴스'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현재 상황과 본국의 뉴스, 공동체 소식 등을 알리는데 주력한다.

이주민들을 위한 인터넷 방송은 2005년 5월 1일 개국한 MNTV방송국과 2005년 4월 개국한 MWTV, 2005년 5월 18일 설립된 '이주노동자방송국(www.migrantsinkorea.net)'등이 있다. MNTV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몽골,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www.mntv.net을 통해 방송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다국어로 방송되는 영상뉴스, 휴먼다큐 세임, 시사다큐 현장, 생활한국어, MNTV스페셜로 구성되어 있다[21]. '이주노동자의 방송 MWTV(migrant workers television)'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직접 발언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방글라데시, 네팔, 버마, 몽골, 중국, 독일,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등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이 힘을 합쳐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다.

MWTV에서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이주노동자 세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한 달 간 주요 이슈와 행사를 생생한 현장취재로 전하고,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심층적인 토론이나 기획취재를 통해 드러내며, 각 나라 이주노동자들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뉴스 프로그램인 '다국어 이주노동자뉴스'는 이주노동자들이 모국어로 한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한국내의 주요뉴스와 이주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뉴스, 공동체뉴스, 국제뉴스 등을 2주간 단위로 정리하여 현재 10개 국어로(방글라데시어, 버마어, 네팔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한국어, 영어) 방송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퍼블릭 액세스 방송국인 시민방송 RTV(위성채널 SkyLife 531)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22]. 이주노동자방송국(www.migrantsinkorea.net)은 2006년 2월1일 9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다[20].

2005년 3월 개국한 소출력 라디오 방송사인 대구성서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지역의 이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9시~11시에 요일별로 스리랑카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몽골어 등으로 국어교육과 외국인을 위한 각종 정보, 외국인에 의한 자국뉴스가 방송된다[24].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에서 일정 기간 경제 활동을 한 뒤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어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면서 한국 사회에의 적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자신들의 일

상을 지배했던 고국의 문화를 온전히 배제하면서 한국 땅에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들은 한국 사회 속에서 기여하고 인정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한국의 문화와 본국의 문화가 동시에 필요한 이주민들에게 방송은 이주민간, 이주민과 본국간, 그리고 이주민과 비이주민간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고 있다.

4. 다문화 콘텐츠의 현황과 전망 : 경기 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4.1 다문화에 대한 이해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수는 234,030이(2007년 현재)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거주 외국인수 765,429명의 30.6%에 해당된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안산시로 29,673명(남성 18,428명, 여성 11,245명)이며, 특히 안산시 단원구 거주 외국인은 25,283명(남 1,640명, 여 8,882명)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화성시에도 20,860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수원시 19,293명, 시흥시 14,864명, 성남시 14,243명 순이다[18].

경기도는 경제투자관리실 산하 국제통상과에서 도내 거주 외국인의 정주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여성정책국에서 부분적으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에 관한 정책은 담당하기 위하여 출입국 외국인 정책분부를 두고 있는데, 최근에 ABT(Active Brain Tower)대학 지정 사업을 통하여 각 지역의 대학과 협력하여 외국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양성하는 기능과 국적 취득 자격시험 센터의 역할을 대학에 위임함으로써 각 지역별 다문화 거점 대학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경기도에서는 2008년 평택대학교와 신홍대학, 두 곳이 선정되었다.

현재 경기도내 다문화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경기대학교 부설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2007년 7월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사업,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다문화교육관련 포럼 및 교사연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사연수, 교육포럼, 멘

토링 상담 등이 있다[17].

- 평택대학교 부설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가족센터는 교육부의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인 '다문화 가족 복지지원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8월 설립되었다. 주요 역할은 다문화 가족 복지전문가의 양성을 토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모델 개발,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 관련 지식과 경험의 메뉴얼화, 다문화가족들에게 필요한 사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 한국사회에 정착한 국제 결혼가족 외국인근로자와 새터민청소년, 불법이민자, 유학생 및 불법체류자 자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19].

경기도내 늘어나는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문화관련 기관이 설립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이와 같은 센터는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난무하던 몇 년 전과 비교하면 훨씬 발전되고 안정된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은 다문화를 개인보다는 가족의 차원에서 접근하며, 따라서 가족을 형성하지 못한 이주민들은 이러한 지원에서조차 소외되기 쉬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지원은 이주민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거나 지도를 받으며, 언어 및 기술 교육 등을 습득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본질은 소수인의 문화나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 있으므로 이들의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복지정책과 함께 문화적 차원에서 미디어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서로의 메시지가 교류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4.2 경기도의 다문화 콘텐츠

안타깝게도 경기도의 지역 방송에서 자체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고정적으로 편성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라디오는 접근이 용이하고 제작비가 비교적 적게 들기 때문에 다문화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매체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분당에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 위치하고 있지만 대구의 성서공동체 FM 등과는 달리 외국인과 관련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고 있다.

1997년 12월 2일 경기지역의 공중파 라디오 방송으로 개국한 FM 99.9Mhz 경기방송은 철저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지향하며 성장하여 왔다. 시민단체와의 공동제작 프로그램이나 지역정보 위주의 뉴스와 시사, 오락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적 콘텐츠로 서울 위주 방송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경기도의 지역 방송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경기방송은 다문화 시대에 발맞추어 중국의 연변 방송국과 교류하며 2006년 추석특집 방송으로 연변방송국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를 위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2007년 베트남 신부 사연공모전을 통하여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의 사연을 방송하면서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일회적 이벤트에 그칠 뿐 후속 프로그램의 제작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케이블 TV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토론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등에서 이주민들의 문제를 다루기는 하였으나 지속성을 지니지는 못하고 있으며,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유일한 지상파 TV방송인 OBS는 경인방송의 실패를 거울삼아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2007년 12월 28일, 경인방송이 사라진지 3년 만에 새롭게 개국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은데, OBS는 최근 홈페이지에 다시보기 서비스를 실시하여 인터넷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론 프로그램과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자체 평가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적 현실을 감안할 때 경기·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코너에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든지 또는 독특한 다문화 콘텐츠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경기도는 지역의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이 많이 살고 있다. 공장 지대와 농촌 지역이 혼재되어 분포하는 지역적 특성과 경제 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이 노동력 확보를 위해 앞 다투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허가하고, 농촌 지역의 출산을 저하를 막고 농촌 남성들의 배우자를 찾아 주기 위해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점 등이 이주민들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이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촉발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다문화 정책은 시혜의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표현

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을 마련하는 일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역동적인 지역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지역 방송이 다문화의 포용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과 관련한 문제들을 주요 의제로 삼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인권이나 권리, 차별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단기적 관심을 가질 뿐 지속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기존의 형식을 답습하거나 유지하기에 급급한 지역 방송은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며 지역민의 정서에 어울리는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방송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역방송은 지역만의 개성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변화의 중심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담론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여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어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3 지역 다문화 방송 콘텐츠의 활성화 방안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합적 지원과 다각적 협력 방안 및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 방송이 다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시청자 위원회, 시청자 평가원 제도,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의 방영, 시청자불만 처리, 재난 방송 실시 등과 같은 사항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나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비 지원을 통해 시청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다문화 콘텐츠의 제작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익적 입장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역 차원이나 중앙 차원에서 지역 사회와 시청자가 다문화 미디어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가치와 언어,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방송은 생존을 위한 도구로서 다문화 콘텐츠를 수용하여야 한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지역의 지리적 경계가 해체되어가며, 사회성이 지역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이 시점에서 지역방송은 가장 지역적인 콘텐츠가 지역민에게 소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지역방송은 지역의 다문

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력하여야 한다.

셋째, 창의적인 다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각 이주민 단체와 자치단체, 미디어기업, 학교, 시민문화단체 등이 협력하여야 한다. 각 주체들이 연계하여 조화롭고 풍부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도구로서 다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며, 각 커뮤니티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 소통의 도구로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사의 설립이나 기존 소출력 라디오 방송사에서 이주민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다문화 교육을 통한 우리 사회 전반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이라고 본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과 병행하여 내국인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통하여 타 문화를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인정하며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삶과 타인의 삶을 조화롭고 평등하게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5. 나가며

마르코 마르티니엘로(Marco Martiniello)는 “단일문화적 사회와 다문화적 사회의 구별은 신화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하였다. “모든 인간사회는 다문화적이며, 단지 그 방식이 모두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14]. 우리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의 신화에 갇혀 살아오면서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고 ‘다름’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관습을 지녀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를 수용하며 국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 정부의 지시나 정책에 의해 진행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획일주의를 양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드니 슈발리에와 알랑 모렐(Denis Chevallier and Alain Morel)은 지역이 제한적 영토(un territoire bien délimité)라기보다는 소우주(un microcosme) 또는 단수적 세계(un univers singulier)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11]. 지역이 우주나 세계의 축소판이라는 것은 조화와 균

형, 공존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학자들이 주목한 것처럼 지역이 단순히 지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공간임을 감안할 때 지역성은 구성원의 소속감과 관심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들은 또 정체성의 생산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나 그룹이 자신들과 타인들 간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주목한다. 같은 장소에 살고 있지만 삶의 방식이나 사교적 행위, 준거 문화 등이 다르다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가 지역의 역동성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지역의 발전과 진보는 바로 역동성에서 기인하며, 지역 방송은 이와 같은 차이를 수용하고 역동성에 부응하여야 한다.

방송에 있어서 공공성의 확보와 지역성의 보장은 중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방송의 권한이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해서 방송의 공공성이 요구되며, 방송이 다양한 견해를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지역성은 지역의 특수성과 문화적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도록 하며, 지역의 특수한 이슈와 독특한 문화 및 사안이 지역의 공적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방송에 있어서 지역성은 타 분야에 비해 소외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역시 문화의 전반적인 영역에 비추어 다소 관심을 덜 받는 분야이다. 다문화와 지역성이 조화를 이루어 지역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다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피할 수 없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감안할 때 지역방송이 언제까지나 이를 외면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문화현상을 반영한 콘텐츠 제공에 있어서 포괄적 문화접근 방식을 택할지 개별적 문화접근 방식을 택할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현 단계에서는 포괄적 반영이 우선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별문화의 반영은 개별수요층의 형성을 전제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각 이주민 커뮤니티의 개별적 소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주변의 것이 중심의 것이 될 수 있고, 비주류의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역동성이 지역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며 이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할 뿐 아니라 확고한 지역 문화의 형성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지역 방송은 기존의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 지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다문화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여 다문화 시대를 열어가는 데 나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명현, 홍석민(2005). 로컬리즘과 지역방송. 한국방송학보 19-1. pp.109-141.

[2] 김남국(2005). 다문화시대의 시민: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 45집 4호. pp.97-121.

[3] 문경희(2006).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 정치학회보 제 16집 3호. pp.67-93.

[4] 박경태(2003). 화교와 인종주의.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이영환 편, 서울:함께 읽는 책, pp.495-521.

[5] 이경숙(2006). 혼종적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포섭된 '이산인'의 정체성:<러브아시안>의 텍스트 분석. 한국방송학보 20-3. pp.239-274.

[6] 이용승(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8호. pp.177-205.

[7] 전규찬 외(2006). 글로벌 시대 미디어 문화의 다양성, 커뮤니케이션북스.

[8] 정상윤(2006). 지역채널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6권 1호 pp.393-424.

[9] 조정남(2001). 현대국가와 다문화주의. 민족연구 6호, pp.6-15.

[10] 조항제(2006). 지역방송의 지역성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34호 pp.275-353.

[11] Chevallier Denis and Morel Alain(1985). Identité culturelle et appartenance régionale : quelques orientations de recherche. Terrain n°5. pp.3-5.

[12] Fiske John(1987). Television Culture. Routledge. London. pp.309-326.

[13] Grossberg Lawrence(2000). Identity and Cultural Studies:Is That All There Is?. in *American cultural studies : a reader*, John Hartley and Roberta E. Pears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4] Martiniello Marco(2002).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윤진 옮김.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15] Samovar Larry A and Porter Richard E(2004).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정현숙·김숙현·최윤희·김혜숙·박기순 역(2007).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서울:커뮤니케이션 북스.

[16] Wolton Dominique(2005). *Il faut sauver la communication*. Flammarion. Paris.

[17] www.cme.or.kr

[18] www.kosis.kr

[19] www.mcfc.or.kr

[20] www.migrantsinkorea.net

[21] www.mmtv.net

[22] www.mwtv.or.kr

[23] www.rtv.or.kr

[24] www.scnfm.or.kr



홍 숙 영

1992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학사)

1996 프랑스 국립 파리 2대학교
언론학과 (언론학석사)

2007 프랑스 국립 파리 2대학교
언론학과(언론학박사)

관심분야 : 미디어정책, 미디어비평
E-Mail : paris2@hansei.ac.kr